

Date: 19 Iyar 5786 (May 6, 2026)

Torah Portion: Behar / Bechukotei

Topic: Four Revelations About Kindness / 친절에 관한 네 가지 깨달음

미드라시는 친절(Kindness)의 본질에 대해 네 가지 뚜렷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훈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에 대한 토라(Torah)의 이해가 인간의 관습적인 시각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결과와 실질적인 이득을 통해 친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토라는 의도, 성품, 그리고 영적 조율이라는 더 깊고 종종 숨겨진 차원을 통해 그 가치를 측정합니다.

첫째, 친절한 행위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친절의 가치는 결과, 즉 수혜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관한 미드라시의 설명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세 명의 천사에게 식사를 준비해 대접했는데, 천사들은 육체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입지도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행동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만나, 미리암의 우물, 그리고 영광의 구름으로 보답하셨으며, 이 기적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친절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엘로힘께서는 이의 진심, 미쯔바(계명)를 수행하는 열정, 그리고 투입된 노력과 시간, 자원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환대는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토라는 부유한 자에 대한 친절에 관한 일반적인 가정을 반박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따르면 부자를 돕지 않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더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이러한 논리를 거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생존하며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 민족은 그들을 빵과 물로 맞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 받았습니다. 왜 일까요? 친절은 단순히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낯선 환경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고 불안을 느낍니다. 환영한다는 단순한 몸짓 하나가 그에게 존엄과 위안을 되찾아 줍니다. 신체적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은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토라는 이러한 성향이 한 민족을 언약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행해진 친절, 특히 이전의 호의를 갚기 위한 행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드로의 환대는 얼핏 보기에 그리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미 이드로의 딸들을 구해주고 양 떼에게 물을 먹였으므로, 이드로는 단순히 호의를 되갚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세를 사위로 삼으려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토라는 이 행위에 영구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수 세기 후, 엘로힘은 이드로가 베푼 친절의 공덕을 그의 후손들을 위해 보존하셨고, 그들이 적대적인 국가들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답 그 자체가 왜 친절로 간주될까요?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주는 자'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답 없이 받기만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러한 기질은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관대함을 반영합니다. 반면, 자신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베푸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성품을 심판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드라시는 큰 결과로 이어진 작은 선물의 사례를 다룹니다. 인간의 이성은 성공의 주된 요인을 수혜자의 주도적 노력 덕분으로 돌릴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초기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수혜자의 나중 번영에 대해서까지 공로를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다시 한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적은 양의 곡식을 주었는데, 이는 물질적으로 그리 대단치 않은 행위였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충분한 밑거름이 되어 그녀의 도약에 기여한 것은 부분적으로 그녀 자신의 공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롯과 결혼하여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Moshiach)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설명은 '신성한 섭리(Divine Providence)'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타인의 큰 성공을 위한 촉매제가 될 때, 그것은 그가 거대한 신의 계획의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관대함과 순수한 의도는 그를 축복이 흐를 수 있는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의 역할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는 그로부터 펼쳐지는 모든 선한 결과의 온전한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례 모두에서 미드라시는 일관된 진리를 드러냅니다. 토라의 관점에서 친절은 외적인 결과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 이의 내면 세계, 즉 그들의 의도, 감수성,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신성한 선하심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측정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것이 엘로힘의 눈에는 거대할 수 있습니다. 친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주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주는 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